

자카르타 돌봄 노동 구조의 재구성에서 가사노동자의 은닉대본

박 준 영*

요약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을 사례로,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은닉대본 개념을 활용해 분석한다. 가사 노동은 돌봄 노동의 한 범주로, 돌봄 노동의 구조적 핵심은 (비)공식성에 있다. 은닉대본은 피지배자가 직접적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인 실천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고 정치적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자카르타의 돌봄 노동은 비공식성이 뚜렷하며, 이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과 동시에 호혜적 관계가 형성, 유지된다. 이에 대응한 공식화 요구는 비공식성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의해 지연됐으나, 타협적 접근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자는 제한된 역량과 위계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은닉대본 실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행위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돌봄 노동의 구조와 가사노동자의 실천 간 상호작용을 조명하며, 구조 중심과 행위자 중심 접근을 절충하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은닉대본, 비공식성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공동연구원, disciple0411@gmail.com

I. 서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도시권(이하 자카르타)¹⁾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에서 나타나는 주요 구조적 재구성 과정에서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 노동을 돌봄 노동의 범주에서 논의하며, 돌봄 노동의 주요 구조적 상황인 비공식성과 공식화의 재구성과 주요 돌봄 행위자 실천 간 상호작용을 논의한다. 특히,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피지배자의 일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저항을 뜻하는 은닉대본(hidden transcript) 개념을 통해 해석한다(김정한 2020; 이영진 2021).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집중된 지역이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는 가사 노동의 외주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는 가사노동자의 자카르타 이주와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돌봄 노동 연구의 주요 논점인 비공식성과 공식화의 구조적 재구성에 주목한다. 기존 돌봄 노동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비공식 돌봄 노동을 공식화하여 보다 양질의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적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Addati 2021; Peterie 외 2024; Razavi 외 2010). 그러나 돌봄 노동의 행위자들은 이러한 국면에 적응하거나 저항하는 실천을 통해 기존의 구조와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1)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그 주변 도시인 보고르(Bogor), 데폭(Depok), 탕그랑(Tangerang), 베키시(Bekasi)를 포함하는 자카르타 대도시권(Jakarta Metropolitan Area)이다. 이 지역은 자카르타의 행정 경계를 넘어 통합된 경제 생활권으로 가능하며, 임금 계약 가사 노동과 관련한 주요 행위자의 거주지와 노동 공간도 자카르타와 인근 도시를 넘나들며 형성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카르타 대도시권을 사례 분석의 중심 지역으로 설정했다. 다만, 서술의 간결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카르타’라는 용어를 자카르타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자카르타의 돌봄 노동 현장에서 가사노동자, 고용인, 공식화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실천에 주목한다. 이 가운데, 고용인과 공식화 활동가는 각각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과 공식화를 상징하는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노동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본 연구는 돌봄 노동 구조의 재구성 과정에서 가사노동자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에 주목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은닉대본’ 개념을 이론적 틀로 도입하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1)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인 실천, 2) 위험 회피 전략, 3) 정치적 효과의 수반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학의 사례를 통해 사회과학의 오랜 이론적 쟁점인 구조/행위자 중심 접근 간 절충을 모색한다. 사회 현상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에서 구조와 행위자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분법은 때로 소모적인 이론 대립으로 비판받기도 했다(배병룡 2018; 염동훈 1997).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돌봄 노동을 분석 대상으로, 비공식성과 공식화라는 구조적 조건과 이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과 실천에 주목한다. 이러한 접근은 구조와 행위가 상호 구성되며, 사회적 실천을 통해 구조가 재생산되고 변화된다는 이중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구조화 이론에 기반한다(기딘스 2012; 김윤태 2007; 박형준 1993; 염동훈 1997).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 방법에 기반해 진행됐다. 정성적 접근은 돌봄 구조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돌봄 행위자들의 인식 및 실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주요 조사 방법은 심층 면담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가사노동자, 고용인, 돌봄 노동 공식화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총 41명이 면담에 참여했으며, 이 중 가사노동자 17명, 고용인 21명, 활동가 3명이 포함된다. 본문에서는 연령, 성별, 이주 배경, 교육 수준, 기술 역량 등을 기준으로 각 집

단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 8명의 사례를 선별하여 직접 인용했다. 개별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이후 사례 소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는 일정 기간 이상 돌봄 노동에 관여하며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과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들로 선정됐으며, 인용된 응답은 교차 검토를 통해 특정 상황이나 관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면담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됐으며, 발화의 의미와 맥락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번역하여 서술했다. 아울러 돌봄 현장과 공식화 운동에 대한 참여 관찰을 진행하고, 선행 연구, 언론 보도, 정책 보고서 등을 활용한 문헌 조사도 병행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No. 2212/002-008)와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Badan Riset dan Inovasi Nasional, 승인 번호: 384/KE.01/SK/06/2023)의 심의를 거쳐 수행됐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그 구조적 맥락을 논의하고,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은닉대본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의 현황과 주요 행위자를 소개한다. 4장은 본론으로,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과 공식화 구조가 가사노동자의 실천과 상호구성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의 의미와 한계를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돌봄 노동의 구조적 배경

돌봄은 인간의 생존과 발달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England 외 2002; Folbre 2006a;

Razavi 외 2010). 돌봄 노동은 이와 같은 돌봄 활동이 노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서적 유대와 상호 의존성을 포함하는 관계 중심적 성격을 지닌다(Razavi 2007). 이는 단순한 상품 생산과 구별되며, 가정 내 무급 노동, 유급 시장 노동,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된다(Duffy 2005). 그러나 이처럼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은 여전히 비가시화되고 저평가되며, 정당한 보상과 인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Folbre 2006b).

현대 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의 외주화와 상품화가 심화되고 있다. 돌봄이 무급 활동에서 유급 노동으로 전환되며, 일정한 자원을 가진 가정이 외부 인력에게 돌봄을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Mattingly 2001). 특히 글로벌 돌봄 체인 개념은 저소득 국가 이주 여성들이 고소득 국가에서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돌봄의 국제적 불균형과 비공식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설명한다(Hochschild 2015; ILO 2024).

돌봄 노동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돌봄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가사 노동의 의미에 주목한다. 폴브르는 돌봄 노동을 제공 대상에 따라 직접/간접 돌봄 노동(In/direct care work)으로 분류한다. 직접 돌봄 노동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간접 돌봄 노동은 청소, 요리, 세탁 등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폴브르는 간접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종종 간과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돌봄 노동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Folbre 2006a).

이 분류 체계에서 가사 노동은 대표적인 간접 돌봄 노동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가사 노동의 비가시성과 저평가 문제를 조명하고, 그 사회·경제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azavi 외 2010). 따라서, 가사 노동은 간접 돌봄 노동으로서 돌봄 노동의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고유한 형태로서 별도의 문제와 조건을 수반한다. 본 연

구는 이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을 돌봄 노동의 한 유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돌봄 노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비공식성으로 인한 불안정성 문제와 양질의 노동(Decent work) 실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돌봄 노동은 구두 계약, 제도적 보호의 결핍, 사회적 인정 부족 등 비공식적 조건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쉽게 노출된다(Addati 2021; Razavi 외 2010). 특히 여성과 이주 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가사 노동 영역은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이다(Schwiter 외 2020).

이에 따라 공식화는 비공식성을 해소하고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다. 표준화된 고용 계약, 사회보장, 경력 개발 기회를 포함하는 공식화 과정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ILO 2011; 2018; Peterie 외 2024).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양질의 노동을 고용 안정, 공정한 보상, 경력 개발, 삶의 질을 포함한 통합적 개념으로 제시하며, 특히 돌봄 노동자처럼 취약한 위치의 노동자들을 위한 기준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 협약(Convention No. 189)을 채택하고, 가사 노동 역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식적 노동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권리와 보호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했다(ILO 2011).

종합하자면, 가사 노동은 돌봄 노동의 한 유형으로서, 그 내재적 특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비공식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비공식성은 가사 노동을 불안정한 노동 형태로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식화가 제안된다. 공식화는 양질의 돌봄 노동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논의는 비공식성과 불안정성을 연결된 문제로 보고, 이를 공식화와 양질의 노동이라는 이상적 상태와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구도는 돌봄 노동

의 (비)공식성과 노동 조건 간의 구조적 연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돌봄 노동이 현실에서 드러내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양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설명의 한계를 노정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돌봄 노동의 구조를 경직된 이분법으로 해석하기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구조의 재구성 과정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주요 행위자들의 실천에 주목하며, 이 실천이 돌봄 노동의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구성이 돌봄 노동의 조건과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이 실천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2. 은닉대본

스콧(2020)은 지배와 저항의 일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은닉대본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피지배 집단이 지배자의 감시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은밀히 구성하는 저항의 언어와 실천을 의미하며(스콧 2020, 173, 324), 구술, 몸짓, 은유, 풍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김정환 2020). 스콧은 이 개념을 통해 전통적인 정치 행위나 조직화된 저항 중심의 분석이 포착하지 못하는 피지배자의 실천을 조명했다.

스콧은 이러한 은닉대본을 하부정치(Infrapolitics)의 전략으로 설명한다(2020, 207). 하부정치는 피지배자가 공개적인 반발 없이 수행하는 저항적 실천을 의미하며, 은닉대본은 하부정치의 핵심 양식으로 작동한다. 공개적인 권력 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지배자는 억압적 질서에 대해 조용한 반기를 든다. 이에 더해, 은닉대본은 반드시 조직적이거나 의도적인 저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불평, 소문, 침

목, 규칙 위반과 같은 비의도적인 행위들 역시 은닉대본의 일부가 되어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의미를 담는다(스콧 2020, 14).

은닉대본은 억압에 대응하는 비공식적 저항의 표현으로, 공개적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친밀한 관계망 속에서 공유되며 피지배 집단의 결속과 저항 의식을 강화한다. 이러한 은닉대본은 지배자 앞에서 수행되는 공식적이고 대체로 순응적인 언어와 행동인 공개대본(Public transcript)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러나 공개대본에서의 순응은 종종 전략적 위장이며, 그 이면에는 비판과 조롱이 은밀히 담겨 있다(스콧 2020, 173). 피지배자는 공개대본의 틀 안에서도 상징적 신호나 위장된 언행을 통해 은닉대본을 암시할 수 있다.

은닉대본은 특히 억압적 지배가 강력할수록 더욱 활성화된다. 전면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지배자는 처벌의 위협을 피하면서도 저항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은닉대본을 활용한다(스콧 2020, 69, 150). 이러한 전략은 ‘저항의 예술(Arts of resistance)’로 기능하며, 피지배자의 목적을 위장하고 저항 실패 시 초래될 결과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김경필 2020).

은닉대본은 전면적이고 가시적인 저항은 아니지만, 지배 구조를 부정하는 상상과 실천을 통해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스콧 2020, 150; 이영진 2021). 특히 단절이나 전복이 아닌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 변화를 지향하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질서에 균열을 내는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나 반란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은닉대본 개념은 억압적 권력 질서에 대한 비가시적 저항을 분석하는 유용한 이론적 도구로 현대 사례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는 공개대본을 권력에 의해 구성된 억압적 질서로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피지배자의 저항을 은닉대본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은닉대본을 공적 공간에서는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사적이고 비공식적

인 맥락에서는 비판, 냉소, 우회, 일탈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저항 실천으로 해석한다(백승국 외 2024; 손주연 2022; Blyth 2019; Gaus 외 2015; Liew 2010). 이러한 해석은 은닉대본이 직접적인 권력 도전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권력의 지속성과 정당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한편, 이은정(2024)은 공개대본을 전면적인 정치 행위로 간주하고, 은닉대본은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공개적 저항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점진적 실천으로 해석한다. 이를 통해 은닉대본과 공개대본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며, 은닉대본이 정치적 주체화 과정의 일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마수미와 모건은 이 개념을 확장하여, 지배자 또한 지배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정형적 실천을 수행한다는 점을 설명한다(Massoumi 외 2024).

이처럼, 현대 사례에 적용된 은닉대본 개념은 지배-피지배 구도 속 일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실천이라는 기본 정의를 유지하면서도, 그 실천 주체, 방식, 정치적 효과에 대한 해석은 시대적·공간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변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실천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인식과 실천, 그리고 그 효과에 주목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동시대 권력관계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반영하여 비판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특정 실천을 은닉대본 실천으로 해석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 해당 실천이 비공식적이며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이다. 즉, 제도화되지 않은 공간이나 사적 영역에서 저항의 방식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은밀히 수행되는 행위에 주목한다. 둘째, 이러한 실천이 직접적인 제재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즉 위험 회피 전략으로 기능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지배 권력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피지배자가 선택하는

방어적 저항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셋째, 해당 실천이 정치적 효과, 곧 지배 질서에 대한 균열이나 재조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은닉된 실천이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나 일상적 생존 전략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적 질서의 변화나 구조의 재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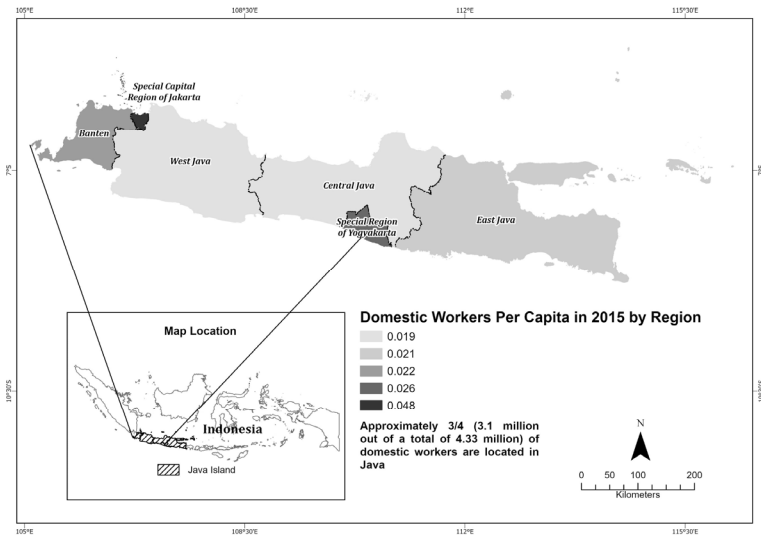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은 기존 이론적 정의와 동시대 사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특징을 반영하되,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유연하게 설정됐다. 이는 은닉대본 개념의 일관되고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구체적 사례에 내재한 실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기능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돌봄 노동의 구조적 조건과 실천적 행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의 핵심 특징인 비공식성과 이에 대응하여 제기되는 공식화 요구 간의 긴장과 재구성 과정을 주요 구조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 개입하는 돌봄 행위자들의 실천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특히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의 맥락에서, 제도적 제약과 다중적 위계에 놓인 가사노동자의 실천 양상과 의미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돌봄 노동 구조의 재구성 과정에서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해석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은닉대본 실천의 주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분석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실천을 은닉대본으로 해석한다. 이 분석 틀은 본 연구의 본론(제4장)에서 실증 분석의 핵심 준거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 구조와 행위자 실천이 상호작용하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Ⅲ. 사례 소개

인도네시아, 특히 자카르타를 포함한 대도시권에서는 가사 노동이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 통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ILO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가사노동자 수는 약 403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여성은 약 300만 명으로 남성(약 103만 명)의 약 세 배에 달한다. 아동 가사노동자는 약 8만 6천 명으로, 이는 2008년 약 27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다. 전체 가사노동자의 약 4분의 3은 자바섬(Java)에 거주하며, 자카르타는 특히 가사 노동이 집중된 지역으로 나타난다(ILO 2018). 아래 그림은 자바섬의 행정구역별 가사노동자 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 자바 행정 구역별 1인당 가사노동자 수



출처: ILO 2018, pp 36-37 참조하여 저자 제작

위 지도는 자바섬의 행정구역별 1인당 가사노동자 수를 비교한 것으로, 자카르타의 비율이 타 지역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며,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 내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의 중심지임을 시사한다. 자카르타 내 가사노동자 수는 약 48만 명으로 추정되며, 인근 반튼(Banten)과 서부 자바(Java Barat)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최대 1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자 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최신 통계는 부족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카르타 내 비공식 노동자의 수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BPS 2024), 가사노동자 역시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카르타의 가사노동자는 주로 비수도권 농촌 출신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술과 교육 수준이 낮아 기원 지역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며, 도시에서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이주하여 가사 노동과 같은 비공식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인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 출신 이주자뿐 아니라 일부 외국인도 포함된다. 자카르타에서는 핵가족화의 진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가정 내 가사 노동의 공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가사 노동의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 돌봄 시스템의 부재는 이러한 외주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며, 결과적으로 저임금 비공식 노동에 대한 의존을 지속시키는 구조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과 노동관계 관리는 가정 내 여성 구성원이 주도한다.

가사 노동의 범위는 청소, 세탁, 요리, 육아, 간병 등으로 다양하며, 대부분 구두 계약에 기반한 비공식적 고용 관계 하에 이루어진다. 노동 형태는 입주형과 출퇴근형으로 구분되며, 출퇴근형의 경우 다수의 가정을 오가며 일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입주형 고용은 자카르타에서 보다 전통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 왔으며, 최근에는 출퇴근형 고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사노동자와 고용인의 상호 선호가 반영된 결과이다.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은 제도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 고용 관계로 이루어지며, 이는 가사노동자가 공식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뿐 아니라, 당사자인 가사노동자와 고용인의 상호 선호에서도 기인한다. 가사노동자는 낮은 교육 수준과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시 내 공식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비공식 노동을 선택하며, 고용인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비공식 고용을 선호한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비공식 계약의 지속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카르타에서는 비공식 가사 노동을 제도화하려는 공식화 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박준영 외 2023). 이 운동은 가사노동자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 여성 인권, 시민사회 활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기존의 비공식 고용 구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IV. 연구 결과

1. 자카르타 가사 노동의 비공식성과 공식화의 재구성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은 비공식성이 핵심적 특징이다. 이 노동 형태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된 가사노동자는 노동자 보호,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 비공식적 돌봄 노동은 갈등과 피해, 특히 가사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자카르타 사례에서도 이러한 전제가 재현된다.

비공식적 계약에서는 노동 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가사노동자와 고용인 간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 그리고 다양한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갈등은 주로 노동의 범위와 방식, 대우 기준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가사 노동의 성과가 청결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결에 대한 주관적 기준이 달라 고용인과 노동자 사이에서 결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동 결과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충돌하고, 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휴가, 성과급, 초과 근무 등과 관련한 조건들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요청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불만이 축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명시적 충돌로 표출되기보다는, 상호 감내와 회피를 통해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동자와 고용인 모두 갈등이 고용관계의 안정성과 기대된 효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보다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갈등과 피해 사례도 존재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가사노동자의 절도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가사노동자가 주방용품이나 의류 등 주로 가사 노동과 관련된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경우에 따라 현금이나 귀금속을 도난하고 도주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이로 인해 고용인은 가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의심하거나 감시하며, 절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마련한다. 이처럼, 비공식적 고용 관계에서 절도를 둘러싼 긴장과 고용인의 피해가 존재한다.

다른 주요 갈등, 피해 사례는 고용인의 언어·신체적 폭력이다. 다음은 한 가사노동자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고용인의 언어 폭력에 대한 사례이다.

그들(고용인)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감정적으로 예민할 때 내가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지적하고 화를 냅니다... 가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부모들은 좋은 사람인데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달리 예의가 없거나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면담 참여자 A; 가사노동자; 2023/12/30

위 가사노동자의 면담 답변과 같이, 고용인의 언어 폭력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사노동자는 고용인 가족 전체로부터 언어적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인의 일상적인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체적 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의 피해 사례를 들은 경우도 존재했다. 특히 신체적 폭력은 주로 연령이 낮은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용인들은 폭력의 존재를 대체로 부인했으나, 면담 과정에서 가사노동자를 ‘혼낸다’, ‘가르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가사노동자를 미숙하고 훈육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무의식적인 언어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고용인은 합의된 임금 지급 기준을 엄격히 이행하지 않으며, 임금 체불, 분할 지급, 미지급 등의 사례가 존재했다.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비공식·저임금 노동자인 가사노동자는 이러한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비공식적 계약 관계는 갈등과 피해를 유발하며, 특히 비공식 노동자인 가사노동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대칭적인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자카르타의 비공식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은 단순한 고용-피고용 관계의 비대칭성을 넘어, 고용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다. 이 관계는 고용인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형성되며, 공간의 ‘주인’으로서 고용인은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하게 된다. 가사노동자는 젊은, 여성, 이주자라는 교차하는 정체성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며, 이러한 권력 비대칭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구조적 조건과 밀접히 연결된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사 노동은 오랜 외주화 관행 속에서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기반으로 보호와 시혜의 논리를 통해 정당화되어 왔으며(Elmhirst 2003), 이는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고착시키는 기반이 된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는 지방 출신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자카르타로 이주하게 만들고, 이들이 비공식·저임금 노동으로 유입되는 구조적 배경을 형성한다(Jordhus-Lier 2017). 이처럼 개인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구조가 중첩되는 맥락에서, 자카르타의 가사노동자는 이주 여성 돌봄 노동자로서 복합적인 불안정성과 권력 불균형을 경험한다.

그러나 비공식성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고용인과 가사노동자는 비공식적 계약 관계에서 가능한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감내 가능한 수준의 불만은 표면화하지 않고 내재화하거나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더 나아가, 비공식적 계약 관계를 호혜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도 관찰되며, 이 과정에서 고용인의 인식과 실천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용인은 가사노동자와의 고용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며, 이는 주로 현실적인 고려에서 비롯된다. 가사노동자와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인은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민감한 노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비하거나 대응해야 한다. 또한 고용 관계가 중단될 경우, 새로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인은 가능한 하면 기존의 고용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의 유지에는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고용인과 가사노동

자 간의 감정적 유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용인은 가사노동자와 사적인 공간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며, 이는 가사노동자가 갖는 불안정한 정체성, 즉 어린 여성, 이주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로서의 복합적인 처지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고용인은 가사노동자에게 혜택을 베풀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고용인의 의도와 행동은 가사노동자를 가족의 일원처럼 여긴다는 면담 답변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 집에 있으면 (가사노동자도) 가족이죠.... 저는 가사노동자가 아프면 제 돈으로 병원에 보냅니다. 그들(가사노동자)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지내는 그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을 잘 끝낸 이후에 우리는 수다를 떨기도 하고 함께 쉬어요. 그들도 여성이고 나도 여성이고 그들도 엄마이고 저도 엄마예요. 우리는 통하는게 있으면 함께 얘기해요.

면담 참여자 B; 고용인; 2024/01/09

위 면담 답변에서는 고용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행되는 친밀한 돌봄 노동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를 통해 가사노동자와 감정적 유대를 구축하고, 이러한 유대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공식적 고용 관계에서 고용인은 가사노동자를 단순한 고용 대상이 아닌 사적 관계의 일부로 인식하며,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비물질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예컨대 입주 형태의 고용에서는 고용인이 가사노동자에게 숙소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때로는 가사노동자 개인 또는 그 가족의 필요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은 저임금, 이주 노동자인 가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호혜적 관계 형성의 기반이 된다. 이로 인해, 비공식 고용 관계는 갈등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협력적이고 원만한 관계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비공식적 돌봄 노동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 특히 가사노동자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식화 운동이 출현했다. 이 운동은 가사 노동을 공식적인 노동 계약 체계로 편입시켜, 가사노동자를 법적 보호와 사회 보장의 대상인 공식 노동자로 인정받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공식화 운동의 확산은 노동권과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점차 공론화되고 심화되는 자카르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운동은 가사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당사자보다는 외부 활동가들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이들은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활동가라는 점에서, 엘리트 활동가로 표현할 수 있다.

공식화 운동은 2000년대 초반, 지역 수준에서 가사노동자의 개별 피해 사례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전국적 연대 조직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활동은 점차 개별 사례 대응을 넘어,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안 제정 요구와 같은 제도화된 정치 행위로 발전했다.

비공식적 돌봄 노동의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권리 침해 사례는 공식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실제 정책 수용과 제도화에는 여전히 난항이 존재한다. 엘리트 활동가들은 공식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원인으로, 정책 결정권자인 정치인들이 고용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차별적 인식이 정책 수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공식화가 고용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비공식 경제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는 지방 정부 및 관련 산업 전반에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반대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공식화)를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사적)

문제로 여깁니다. 따라서 정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정당에서는 이 법안(권리보장법안)이 매력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 유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가사노동자들) 다섯 명씩 고용한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 사회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가사노동자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면담 참여자 C; 엘리트 활동가; 2023/07/08

위 활동가 면담 답변에서는 돌봄 노동의 공식화가 공적 논의의 대상이기보다는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며, 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적·사회문화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엘리트 활동가들은 공식화 전략을 보다 타협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식화의 당위성과 노동권 담론을 중심으로 주장했다면, 최근에는 가사노동자의 구체적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감성적 호소를 병행하거나, 권리보장법안의 내용 중 고용인과 산업 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예: 최저임금 적용, 노동시간 제한, 사회보험 의무화 등)을 완화 또는 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는 점진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카르타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점진적인 공식화를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 증가와 주거 공간 축소는 입주형 가사노동자 고용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와 함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도 점차 전문화·공식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 출신 직접 이주자의 감소와 함께 고용 경로가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공식적 매개체로 전환되면서, 고용인과 노동자 간의 사적 관계는 약화되고, 계약 기반의 공식 고용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최근 국외 이주 가사노동자 수가 급증하며 주요 송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 송금의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돌봄 노동을 권리와 보호가 요구되는 전문 노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국내외 변화는 돌봄 노동의 공식화가 사회적으로 점차 수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제도적 틀에 기반한 포괄적 공식화라기보다는, 사적 관계의 약화에 기인한 상대적 공식화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공식화’는 제도적 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기존에 저임금·불안정 노동 조건을 일정 부분 보완해왔던 사적 관계 기반의 상호 호혜적 돌봄 구조를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돌봄 노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은 비공식성과 공식화의 재구성에 서 전개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비공식성으로 인한 돌봄 노동의 불안정성을 공식화를 통해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비공식적 돌봄 노동이 호혜적으로 유지되거나, 불완전한 공식화가 오히려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는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이 핵심 구조이긴 하나, 기존 논의의 단선적 전제를 넘어 보다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가사노동자의 은닉대본

자카르타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의 구조적 재구성 과정에서, 고용인과 엘리트 활동가는 각각 비공식성과 공식화 국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용인은 돌봄 노동의 공백을 최소 비용으로 외주화하면서, 비공식적 계약이 제공하는 유연성과 실용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반면, 엘리트 활동가는 비공식 노동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고, 공식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전략을 구상

하고 실행에 옮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사노동자는 단순히 구조적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부차적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사노동자가 변화하는 구조적 조건에서 제한된 역량과 다중적 위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을 수행하는 행위자임을 강조한다. 아래에서는 가사노동자가 돌봄 노동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고용인 및 엘리트 활동가를 상대로 수행하는 실천을 은닉대본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분석하기에 앞서, 자카르타 돌봄 노동 구조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자는 고용인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고용 공간이 고용인의 사적 영역이라는 점, 이주자이자 젊은 여성으로서 피후견적 지위에 놓여 있다는 조건에서 비롯된다. 엘리트 활동가와와의 관계에서도, 이들의 높은 전문성과 헌신적 노력으로 인해 가사노동자가 이견을 제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자카르타 돌봄 노동 구조에서 가사노동자는 다중적인 위계 속에 위치하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은 직접적이기보다 은밀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은닉대본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을 갖는다.

우선, 가사노동자는 비공식적 돌봄 노동 계약 관계에서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인과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을 수행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고용인은 가사노동자와의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사적 관계 형성을 시도하며, 이는 돌봄 노동이 사적인 공간에서 수행되는 친밀한 노동이라는 특성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는 고용인의 이러한 의도와 실천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조절한다. 다수의 가사노동자는 고용인과의 과도한 사적 관계 형성을 경계하며, 외출이나 여행 동행, 식사 초

대와 같은 제안에 대해 완곡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과도한 친밀감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부당한 처우나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저는 고용인과 가족처럼 지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에게 월급을 받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문 노동자로 대우받고 싶어요. 가족처럼 지내는 건 좋죠. 그런데 제가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했을 때, 고용인이 “우리는 가족인데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냐?”고 하더라고요.

면담 참여자 D; 가사노동자; 2024/08/04

위 면담 답변과 같이, 가사노동자는 친밀한 관계가 착취를 정당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려 한다. 동시에 고용인의 호의가 노동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경우, 이를 전략적으로 수용하며 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저는 노동자이지만, 고용인이 가족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고용인이 도움을 줄 때 고마워요. 저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준 고용인도 있어요.

면담 참여자 E; 가사노동자; 2024/08/04

이처럼 가사노동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해 고용인에게 감사의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호혜적 관계를 유지한다. 고용인이 제공하는 혜택과 지원은 가사노동자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고, 이주 이후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된다. 가사노동자는 고용인의 사적 공간에서 노동할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사적 관계를 일정 부분

수용한다. 요약하면, 가사노동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적 관계를 받아들여, 과도한 사적 침투에 대해서는 경계를 조율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가사노동자는 고용인이 제공하는 혜택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며 관계의 경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로써 호혜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가사노동자는 단순히 고용인의 실천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부 가사노동자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휴가나 임금 가불을 요청하며, 고용인은 노동자의 불안정한 처지를 인식하고 원만한 고용 관계의 유지를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공식적 계약 구조의 낮은 구속력은 대체로 가사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유연성이 노동자에게 협상의 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가사노동자는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고용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로, 이슬람 휴일인 이돌 피트리(Idul Fitri)는 가장 중요한 명절로 간주되며, 이 시기를 전후로 통상 일주일 이상의 연휴가 형성된다. 자카르타의 가사노동자는 대다수가 비수도권 출신 이주자로, 이 시기를 활용해 고향을 방문하며, 휴가 직전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가사노동자가 고용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이 시점은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성과급 수령 직후 고용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도 관찰된다. 이러한 행위는 비윤리적인 실천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가사노동자가 구속력 없는 비공식 계약에서 일방적인 피해만을 입지 않고 비공식적 계약 구조의 유연성과 허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는 고용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천을 수행한다. 이러한 실천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은닉대본의 세 가지 분석 기준에 부합하며, 은닉대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고용인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완곡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며, 일부 실천은 고용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이는 갈등을 회피하고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위협 회피 전략으로 작동한다. 셋째, 부당한 처우를 피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은 은닉대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자는 공식화를 요구하는 엘리트 활동가를 상대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전개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엘리트 활동가는 비공식적 돌봄 노동의 공식화를 요구해 왔으며, 초기의 경직된 당위적 주장들이 제도 정치권과 고용인의 저항에 부딪혀 수용되지 않자, 타협 전략을 통해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트 활동가가 공식화 요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가사노동자들이 공식화 요구의 목표와 전략 설정,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식화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는 고용인의 반대와 제도권의 소극적 대응이라는 외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공식화에 대한 가사노동자의 미온적 태도 또한 주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가사노동자들은 제도화가 고용인과의 관계에 긴장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제도화 요구에 동참하지 않거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들이 공식화 운동 참여를) 거절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고용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간혹 이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기(공식화 운동 단체)에

가면 돈을 주냐고 물어보는 가사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해서 참여를 못하기도 합니다…. 공식화로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가사노동자도 있습니다. 고용인들이 화가 나면 해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담 참여자 F; 엘리트 활동가; 2023/01/06

이처럼 가사노동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공식화 운동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 배경에는 현재의 비공식적 고용 관계가 일정 수준의 호혜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다. 이들은 공식화 요구를 당면한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불확실한 개입으로 인식하며, 그 필요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공식화가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담론이 사회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확산되는 데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공식화 운동에 참여하는 일부 가사노동자들 역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네트워크 형성이나 당면 과제 해결과 같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래 면담 응답에서 확인된다.

(공식화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고용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에 참여하며 휴일은 어때야 하는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사노동자) 권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면담 참여자 G; 가사노동자; 2023/07/02

(공식화는)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국회에서 오래 걸려요. 언젠가 공식화가 될 수도 있겠죠. (공식화를) 원하고 있어요…. (엘리트) 활동가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도와준다고 느껴요. 가사노동자를 대신해서 국

회의원들과 협상하고 있어요....가사노동자의 어려움을 이해해 줘요.

면담 참여자 A; 가사노동자; 2023/12/30

이처럼, 가사노동자들은 공식화 자체보다는 일상에서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화 운동에 참여하며, 엘리트 활동가들의 전략과 목표에 확신하지 못하지만, 엘리트 활동가들의 입장과 노력을 인정하며, 일정 수준의 지지를 표현하고 있다. 엘리트 활동가들이 채택한 타협 전략은 이러한 복합적이고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목표가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활동가들은, 운동의 지속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인 전략 조정에 나섰다.

이 활동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잘란 텡아 (Jalan Tengah, ‘가운데 난 길’이라는 뜻으로 타협점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극적 지지자(soft advocates) 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가사노동자 공식화를 위한 법안) 통과는 중요합니다. 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지방 정부와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입니다.

면담 참여자 H; 엘리트 활동가; 2022/12/29

이 면담 내용은 엘리트 활동가가 기존의 전략을 조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공식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식화 요구의 타협 전략은 엘리트 활동가의 주체적인 전략 수립의 결과일 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들의 우려, 무관심, 제한적 참여와 같은 실천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산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사노동자들의 실천은 단순한 수동적 반응에 그치지 않으며, 공식화 요구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한 요소로 평

가할 수 있다. 기존의 당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공식화 목표는 전면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가사노동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엘리트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자의 실천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동참을 유보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가사노동자 스스로도 이를 저항의 실천으로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실천은 엘리트 활동가와의 관계 약화나, 이들의 헌신적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담에서 비롯된 위험 회피 전략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공식화 운동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과 또한 수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은닉대본 실천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사노동자는 제한된 협상력과 다중적인 위계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고용인이나 활동가의 의도에 순응하는 듯한 태도나 완곡한 거절을 통해 대응한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권력관계를 은폐하는 ‘공개대본’의 형태로 작동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자신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입장을 관철하려는 실천이 은밀하게 수행되며, 이는 ‘은닉대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천이 제한된 권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 노동의 재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자의 실천은 1) 비공식적이며 비가시적인 수행, 2) 위험 회피 전략이라는 점에서 은닉대본 실천의 성격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실천은 은닉대본 실천의 세 번째 기준인 3) 정치적 효과와도 연결된다. 가사노동자는 전면적 공식화와 제도적 권리 보장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용인과의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한

편, 엘리트 활동가가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임시 대응을 넘어, 제한된 권력 구조의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경험 공유와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비가시적 실천이 개인의 대응을 넘어 집합적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사노동자의 은닉대본 실천은 주로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부는 비윤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해당 실천을 정치적 효과를 보장하는 대안적 실천으로 제시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동시에, 이러한 실천은 비대칭적이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가사노동자가 선택한 현실적이고 임시적인 전략으로서, 이를 통해 오히려 구조적 문제의 존재와 그 해결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사례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자의 실천은 은닉대본의 개념적 기준에 부합한다. 특정 실천을 은닉대본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즉각적인 정치적 영향력이나 윤리적 정당성보다 더 핵심적인 요소는, 피지배·피억압 집단이 수동적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가사노동자 은닉대본 실천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분석적 함의를 지닌다.

V. 결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을 사례로, 돌봄 노동의 구조적 재구성과 주요 돌봄 행위자의 실천을 분석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집중된 도시로, 본

연구는 이 지역의 가사 노동을 돌봄 노동의 범주에서 논의했다. 특히 비공식성과 공식화를 돌봄 노동의 구조적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상호작용하는 가사노동자의 실천을 은닉대본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기존의 돌봄 노동 연구는 비공식성으로 인해 돌봄 노동이 불안정하게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공식성과 공식화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며, 그 경계에서 형성되는 가사노동자의 전략적 실천에 주목했다. 은닉대본은 억압된 행위자가 공개적 저항이 아닌 비가시적 방식으로 위협을 회피하고 동시에 정치적 효과를 도모하는 실천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틀로 활용됐다.

연구 결과, 자카르타의 임금 계약 가사 노동은 비공식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호 호혜에 기반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인다. 공식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등장했으나, 비공식적 관계에 얽힌 다층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식화는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공식화 요구는 비공식성과 타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에 반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구조적 맥락에서 가사노동자는 단순히 수동적·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용인과 엘리트 활동가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조정하며, 비공식성과 공식화의 틈새를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를 조성하고 권리를 확장하는 실천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사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조율하며 자신의 안정성과 이익을 도모하고, 엘리트 활동가와의 관계에서는 공식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되, 제한적 참여를 통해 권리 보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관찰됐다.

가사노동자의 실천은 직접적 대립을 회피하면서, 비공식적이고 비

가시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질적 변화를 모색하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가사노동자들은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며 돌봄 노동의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전략과 실천을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효과 또한 창출했다. 이러한 실천의 성격은 은닉대본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사노동자의 은닉대본 실천은 돌봄 노동의 비공식성과 공식화 사이에서 유연하게 작동하는 전략적 대응이며, 이는 기존의 돌봄 노동 구조에 적응하는 동시에 점진적 변화를 추동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돌봄 노동의 구조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단선적·대립적으로 보기보다, 상호구성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학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학적 관점에서 돌봄 노동 연구를 새롭게 조명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다른 지역 사례와의 비교 및 비판적 재검토를 통해 그 이론적 함의와 적용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투 고 일: 2025. 05. 26

심 사 완 료 일: 2025. 06. 16

게 재 확 정 일: 2025. 06. 23

참고문헌

- 기딘스, 안소니. 황명주, 정희태, 권진현 역. 2012. 『사회구성론』. 서울: 간디서원.
- 김정필. 2020. “스콧이 그려낸 지배와 저항의 이중주.” 『사회통합연구』 1(2): 127-136.
- 김윤태. 2007. “통합적 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앤서니 기딘스의 사회이론.” 『사회와 이론』 11: 49-81.
- 김정환. 2020. “일상적 저항의 은닉 대본과 그 정치적 효과: 제임스 스콧,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은닉 대본」.” 『인문학연구』 34: 283-289.
- 박준영·조규린·최태수. 2023.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운동과 제도-타협 실천.” 『동남아시아연구』 33(4): 201-244.
- 박형준. 1993. “안토니 기딘즈의 구조화 이론과 근대성.” 『한국사회학』 26(SUM): 167-186.
- 배병룡. 2018. “A. Giddens의 실천적 인간관과 구조화이론: 행정의 관례화에 대한 함의.”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동계): 483-507.
- 백승국·장석준. 2024.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은닉 대본’과 당·군 관계: 이론적 분석과 정치적 함의.” 『국방연구』 67(3): 117-145.
- 손주연. 2022.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의 코로나19 담론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63: 177-202.
- 스콧, 제임스. 전상인 역. 2020.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은닉 대본』. 서울: 후마니타스
- 염동훈. 1997. “안토니 기딘스 A. Giddens의 구조화 이론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 『한국사회학』 31(F): 671-698.
- 이영진. 2021. “제국의 곤경과 저항의 논리: 포스트식민주의 연구 리뷰.” 『사회과학연구』 60(1): 305-335.
- 이은정. 2024. “미얀마 유학생의 초국적 고국 정치 참여: 2021년 쿠데타 이후 한국 내 미얀마 유학생의 정치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

『아시아연구』 34(4): 87-129.

- Addati, Laura. 2021. "Transforming care work and care jobs for the future of decent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 and Caring*, 5(1): 149-154.
- Blyth, Pascale. L. 2019. "Of cyberliberation and forbidden fornication: Hidden transcripts of autonomous mobility in Finland."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71: 236-247.
- BPS(Bada Pusat Statistics) Indonesia DKI Jakarta Province. 2024. "Jakarta's Current Labor Force Condition in August 2024." <https://jakarta.bps.go.id/en/pressrelease/2024/11/05/1170/keadaan-ketenagakerjaan-provinsi-dki-jakarta-agustus-2024.html>(검색일: 2025.06.30.).
- Duffy, Mignon. 2005. "Reproducing Labor Inequalities: Challenges for Feminists Conceptualizing Care at the Intersections of Gender, Race, and Class." *Gender & Society*, 19(1): 66-82.
- Elmhirst, Rebecca. 2003. 'Learning the ways of the Priyayi': Domestic servants and the mediation of modernity in Jakarta, Indonesia. In J. H. Momse, ed. *Gender, migration and domestic service*. London: Routledge.
- England, Paula., Budig, M., and Folbre, N. 2002. "Wages of Virtue: The Relative Pay of Care Work." *Social Problems*, 49(4): 455-473.
- Folbre, Nancy. 2006a. "Demanding Quality: Worker/Consumer Coalitions and "High Road" Strategies in the Care Sector." *Politics & Society*, 34(1): 11-32.
- _____. 2006b. "Measuring Care: Gender, Empowerment, and the Care Econom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7(2): 183-199.
- Gaus, Nurdiana and Hall, D. 2015. "Weapon of the weak: the hidden

transcripts of academics' resistance to policy imperatives in Indonesian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5(9/10): 683-698.

Hochschild, Arlie Russell. 2015. "Global care chains and emotional surplus value." In *Justice, politics, and the family*. Routledge.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1.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https://www.ilo.org/media/346671/download>(검색일: 2025.06.30.)

_____. 2018. "Toward a better estimation of total population of domestic workers in Indonesia." Uzair Suhaimi and Muhammad N. Farid, eds. <https://www.ilo.org/publications/toward-better-estimation-total-population-domestic-workers-indonesia> (검색일: 2025.06.30.).

_____. 2024, "Labour rights and social protection coverage for domestic workers in ASEAN." <https://www.ilo.org/publications/labour-rights-and-social-protection-coverage-domestic-workers-asean>(검색일: 2025.06.30.).

Jordhus-Lier, David. 2017. "Claiming industrial citizenship: The struggle for domestic worker rights in Indonesia." *Norsk Geografisk Tidsskrift-Norwegian Journal of Geography*, 71(4): 243-252.

Liew, Warren. M. 2010. "Digital hidden transcripts: Exploring student resistance in blogs." *Computers and Composition*, 27(4): 304-314.

Massoumi, NNarzanin and Morgan, M. 2024. "Hidden Transcripts of the Powerful: Researching the Arts of Domination." *Sociology*, 58(6): 1341-1358.

Mattingly, Doreen J. 2001. "The home and the world: domestic service and international networks of caring labo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2): 370-386.

- Peteric, Michelle, and Broom, A. 2024. "Conceptualising care: critical perspectives on informal care and inequality." *Social Theory & Health*, 22(1): 53-70.
- Razavi Shahra and Staab, S. 2010. "Underpaid and overworked: A cross-national perspective on care worke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9: 407-422.
- Schwiter, Karin and Steiner, J. 2020. "Geographies of care work: The commodification of care, digital care futures and alternative caring visions." *Geography Compass*, 14: e12546.

Abstract

Hidden Transcripts of Domestic Workers in the Reconfiguration of Jakarta's Care Labor Structure

Park, Junyoung

Research Fellow

Southeast Asia Center,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es of domestic workers in Jakarta, Indonesia, through the concept of the hidden transcript, focusing on how (in)formality in care labor is structurally reconfigured. Domestic labor, as a form of care work, is shaped by (in)formality as a key structural condition. The hidden transcript refers to the informal and often invisible practices through which subordinated actors navigate risk and pursue political effects in contexts where open resistance is constrained. In Jakarta, care labor remains highly informal, producing both precarity and reciprocal ties. While formalization has been demanded, progress is slow due to vested interests in informality. However, compromise strategies and shifting social and physical conditions have opened space for gradual change. In this context, domestic workers exercise agency through hidden transcript practices that mitigate harm and improve conditions. The study highlights the interplay between structure and practice, offering a framework that

bridges structural and agentic perspectives on care labor.

Keywords: Indonesia, Domestic Labor, Care Work, Hidden Transcript,
Informality